

작년 와인 수입 20% 급감... 위스키는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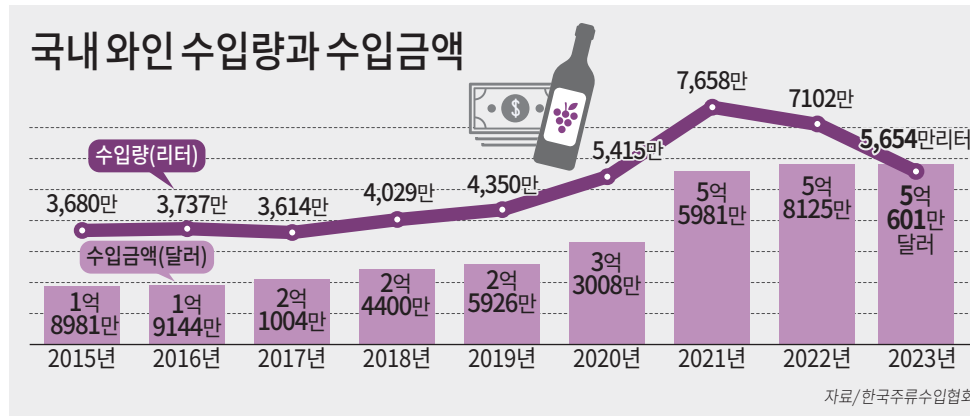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결국 꺾였다. 와인 시장 말이다. 와인 수입 규모와 수입액 모두 감소폭이 두 자릿수에 달하며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엔데믹과 함께 와인 열풍도 식은 셈이다.

와인의 빈 자리는 하이볼이 메웠다. 하이볼에 쓰이는 위스키와 리큐어는 수입 물량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5억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9% 줄면서 십년 넘게 이어졌던 성장세가 멈췄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 5억5980만 달러, 2022년 5억8125만 달러로 6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폭이 더 크다. 작년 와인 수입량은 5654만 리터로 전년 대비 20.4%나 줄었다. 2020년 5414만 리터에서 2021년 7657만 리터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7102만 리터, 2023년 5654만 리터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가나 와인종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줄었다.

와인 수입액 기준으로 칠레 와인이 28.3%나 줄면서 구입 비중 1위 자리를 내줬고, 스페인 와인도 16.7% 감소했다. 미국과 이탈리아 와인 수입도 각각 10.1%, 21.1% 감소했다.

와인 수입 규모가 유지된 곳은 프랑스가 유일했다. 수입 물량은 20%가 넘게 줄었는데 수입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고가 와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나뉘 봐도 수입액이 각각 20.5%, 11.5% 줄었다.

지난해 와인 대신 선택을 받은 것은 하이볼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3058만리터로 전년 대비 13.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었다. 리큐어 역시 수입량이 1198만 리터로 전년 대비 63.2%

급증했다.

수입량 대비 수입액이 덜 줄어 일부 고급화가 이뤄졌다고 감안해도 와인 시장은 일단 위축됐다고 봐야 맞을 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작년 3분기 보고서의 시장 전망을 통해 “와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나 거시경제 악화영향으로 인한 와인시장의 위축이 반영되어 수입이 감소했다”면서도 “당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주류 및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와인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력은 10위지만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2021년)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smah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마음의 슬픔이 불러온 ‘유행’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탕후루 가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탕후루 전에도 큰 인기를 모으다 순식간에 사라진 디저트들이 있었다. 모카번, 슈니발렌, 대만 카스텔라, 별집 아이스크림, 마카롱, 크로플, 소금빵 등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가득이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 약과가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며, 유행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보면 유행은 디저트 시장에서만 빠른 게 아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 별게 다 유행한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공황장애가 트렌드가 되는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우울증, 번아웃, 성인 ADHD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왜 이리도 트렌드에 민감한 것인가 궁금했는데 황현산 문화평론가가 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얻었다. 저자는 어느 신문에서 ‘한국 시장이 마케팅의 시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이 중적인 감정을 느낀다. 세계화의 성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소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다가도 단 한 순간 단 한 걸음이라도 남에게 뒤처질세라 허둥지둥 달려가는 가쁜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아 안타까워한다.

책은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 버리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설명한다. 어제 반짝이던 것들은 오늘 고깃적 유행이 되고, 내일 내릴 결정은 모래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증명된다.

저자는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지음/난다

속에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며 “그날의 기억밖에 없는 삶은 그날 벌여 그날 먹는 삶보다 더 슬프다”고 한탄한다.

책은 이러한 슬픔이 유행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교섭해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진정한 기억으로 그 일관성을 얻지 못하면 삶을 왜 사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 삶은 ‘밖에서 생산된 기호(유행)’로 그것을 대신한다.

저자는 “밖에서 기호를 구해 의미의 자리를 메울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 밖의 기호 속에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의 문화는 열등감의 문화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인다”면서 “제 깊이를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은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나 다를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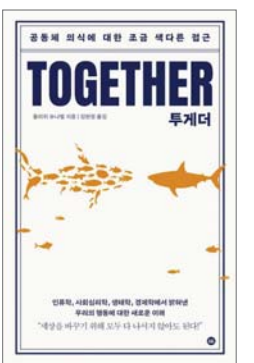
30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투게더

올리히 슈나벨 지음/김현정 옮김/디이너서티브

호모 사피엔스가 이기적이라는 편견은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 체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델라웨어 대학 재난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놀랍게도 인간의 선한 면은 ‘긴급 상황’에서 더 활성화됐다. 책은 기후변화, 전염병,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핵

심 역량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란, 우리가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는 ‘상식’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사고와 개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고에 대해 좀 더 섬세한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공동체 의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전파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68쪽. 2만원.



모두가 가면 을 벗는다면

데번 프라이스 지음/신소희 옮김/디플롯

사회심리학자이자 대학교수, 자폐인인 저자가 2018년 처음 블로그에 자폐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메일함에는 “혹시 저도 자폐인가요?”라고 묻는 이메일이 5000통 넘게 쌓였다. 그들이 이런 의구심을 품은 이유는 현재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 백인’을 기준으로 세워졌다는 저자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같은 자폐인이어

도 사회적 소수자이면 증상을 무시당한다. 자폐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자라 너무 예민하다’며 외면당하고, 유색인일 때는 ‘위험한 인물’로 구분돼 경계 대상이 된다. 책은 자폐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정상성의 가면’을 쓰고 사는지, 그 가면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412쪽. 2만2000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페터 베르 지음/장혜경 옮김/갈매나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직업, 나이, 출신 대학 등을 줄줄이 읊는다. 돌아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다. 저자는 현대 사회를 ‘무한한 기회, 불투명한 확신’으로 정의한다. 자유가 넘치지만 많은 게 불확실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남들이 좋다는 인생을 따라 살고, 종일 SNS를 들여다보며 광고에서 소개된 제품과 목표를 허겁지겁 좇는다. 저자는 “광고 산업이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한다”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조언한다.

304쪽. 1만85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EU 공급망 실사·탄소국경제 임박... 정부, 韓기업 부담 최소화 당부
▲“젤렌스키, ‘불화설’ 총사령관 곧 해임 발표할 듯” /사진 뉴스스

▲美국방부, ‘中 군사 기업’ 목록에 메모리업체 YMTC 추가
▲캐나다 해안마을에 1800년대 난파선 나타나



▲중국, 대만 최근접 항로 변경 왜?... “해협 중간선 무력화시도”
▲이란 정예부대 “전쟁 원하지 않지만 미국 공격하면 대응” /사진 뉴스스